



## 중수익으로 눈돌리는 투자자들

### 1. 해외주식 투자가 해외펀드 투자로 확대

- 2020년 하반기에는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한 경험이 해외주식펀드 투자로 확대되기 시작
- 투자자들은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나 국가를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상장 ETF, 해외주식펀드 등에 투자
- 최근 6개월간 자금이 많이 유입된 펀드는 전기차 관련 펀드, IT 펀드, 중국펀드, 친환경산업 펀드 등

### 2. 발행규모 증가하는 ELS/ELB

- 2021년 들어 3000pt를 넘어선 국내주식 시장이 주춤하면서, ELS/ ELB 발행 규모 증가
- 기초자산 가격이 회복되면서, Knock In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 국내외 주식시장 지수가 높아지면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

### 3. IPO 활성화와 공모주펀드

- 2021년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 대어급 IPO 예정
- IPO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공모주 펀드 선호 증가
- 자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ELS-공모주펀드 등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음

## 1. 해외주식 투자가 해외펀드 투자로 확대

2020년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등장은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2000년대 중반 브릭스펀드, 중국펀드 등 해외주식 투자의 경험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이어졌다. 2020년 하반기에는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한 경험이 해외주식펀드 투자로 확대되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정보습득의 어려움, 거래시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국내주식 투자보다는 신경써야 할 것이 많다. 투자자들은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나 국가를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상장 ETF, 해외주식펀드 등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6개월간 자금이 많이 유입된 펀드는 전기차 관련 펀드, IT 펀드, 중국펀드, 친환경 산업 펀드 등이었다.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몇몇 펀드는 순자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최근 6개월간 해외주식펀드 자금 유입 상위 펀드

(단위: 억원,%)

| 펀드명                         | 유형      | 자금유출입 | 순자산    | 수익률   |      |
|-----------------------------|---------|-------|--------|-------|------|
|                             |         |       |        | 1개월   | 1년   |
|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              | 에너지섹터   | 9,034 | 11,385 | -3.0  | 88.5 |
| 미래에셋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 중국주식    | 7,021 | 6,422  | -13.1 |      |
|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                  | 중국주식    | 5,374 | 10,379 | -5.9  | 83.2 |
|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 정보기술섹터  | 5,214 | 23,671 | 2.0   | 53.8 |
| KB 중국본토 A 주                 | 중국주식    | 3,210 | 9,383  | -1.4  | 72.0 |
| 삼성 KODEX 미국 FANG 플러스(H)     | 멀티/기타섹터 | 2,660 | 4,761  | 1.2   | 87.8 |
|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                | 에너지섹터   | 2,295 | 2,355  | -13.6 | 85.9 |
| IBK 켄쇼4.0레볼루션(H)            | 정보기술섹터  | 2,273 | 2,356  | -6.0  | 74.3 |
| 미래에셋 TIGER 나스닥100           | 북미주식    | 2,224 | 6,427  | -2.4  | 38.1 |
| KB 통중국4차산업                  | 중국주식    | 2,147 | 4,632  | -3.7  | 66.4 |
| NH-Amundi 글로벌혁신기업           | 글로벌주식   | 2,130 | 3,108  | -4.7  | 51.2 |
| 피델리티글로벌컨슈머                  | 소비재섹터   | 2,006 | 2,069  | -1.1  |      |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월 4일 영업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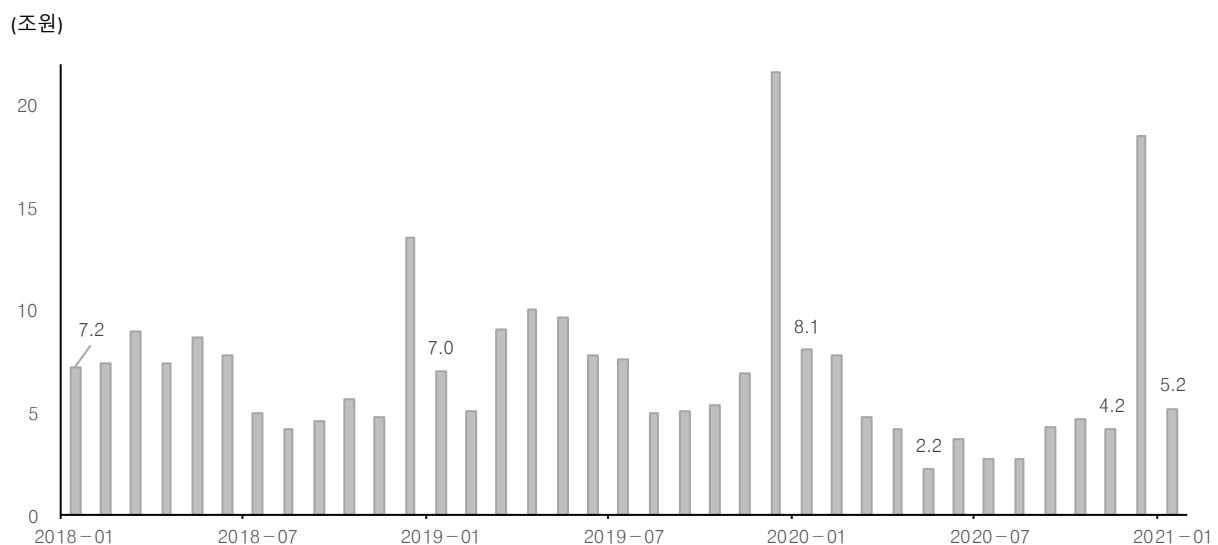
## 2. 발행규모 증가하는 ELS/ELB

2020년 2분기 이후 국내증시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ELS/ELB 발행 잔액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2020년 4월에는 2.2조원까지 줄어들었고, 11월까지 월간 발행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2021년 들어 3000pt를 넘어선 국내주식 시장이 주춤하면서, ELS/ELB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1월에는 5.1조원이 발행되었다. ELS의 특성상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 녹인(Knock In)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2020년 변동성이 컸던 기초자산의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아진 것이 ELS/ELB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외 주식 시장의 지수 수준이 높아지면서, 2020년의 자산수익률보다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ELS/ELB 발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ELS/ELB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으로 당분간 ELS/ELB 발행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차트1]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2020년에는 ELS/ELB 발행 규모가 줄어들었음. 증시 상승이 주춤해지면서 ELS 발행 증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3. IPO 활성화와 공모주펀드

2020년에는 SK바이오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대어급IPO가 이어지면서, 공모주펀드 수익률이 높아졌다. 작년 IPO 펀드(해외펀드 포함)의 1년 수익률은 12.6%로 2019년의 2.6%보다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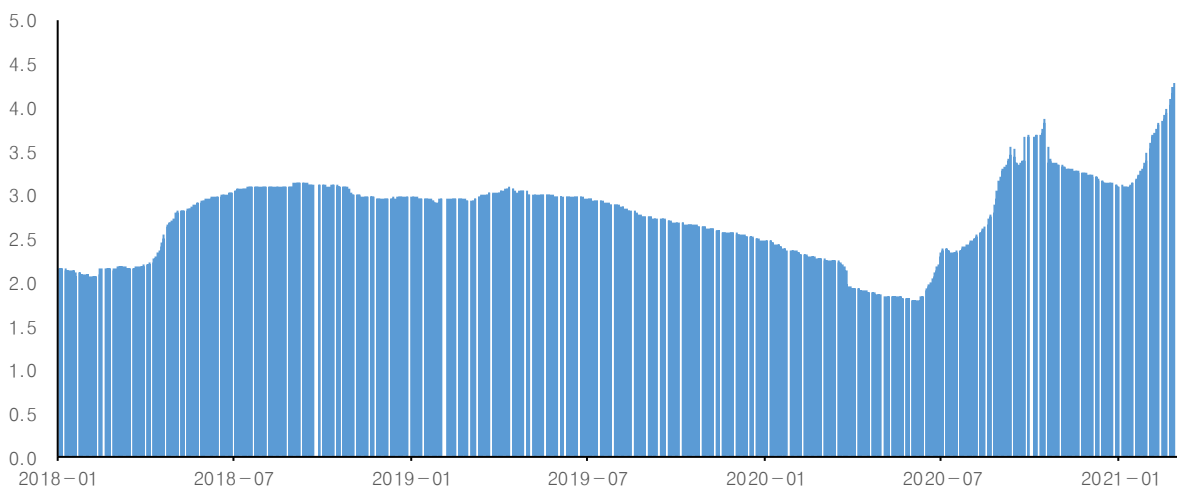
2021년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백신), SK아이이테크놀로지(배터리 분리막), 크래프톤(배틀그라운드), 카카오뱅크(인터넷뱅크), 카카오페이(페이), LG 에너지솔루션(2차전지)등의 IPO가 예정되고 있다. IPO 예정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 2021년 공모주펀드 시장도 기대가 큰 상황이다.

작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최소 청약주수 이상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공모주의 50% 이상을 균등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IPO가 활성화될수록, IPO 경쟁률은 크게 높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주펀드가 공모주투자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자산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ELS, 공모주 펀드 등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트2] IPO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공모주펀드 규모는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증가

(조원)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